

제 2106 호 | 2022년 7월 31일

# 새소망교회

2022년 표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창1:28)

교회목사: 안인재 목사  
부목사: 안진호 목사  
교육목사: 안승우 목사  
도서도서: 김시무 목사  
전도사: 김재현 목사  
부전도사: 김동수 목사  
부전도사: 김동수 목사  
부전도사: 김동수 목사

newhopechurch



# 예배 순서

제 2106 호

7월 31일 2022년

집례 : 안지웅 목사 (1부)  
안인권 목사 (2부)  
Rev. Joe Ahn (3부)

* 찬 송 -----	고개들어	----- 다같이 Precessional Hymn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Confession of Faith
기 도 -----	합심기도	----- 다같이 Prayer
* 봉 헌 -----		----- 다같이 Offering
봉 헌기도 -----		집례자 Offering Prayer Presider
성 경 -----	1부: 요 6:22-29 2부: 마 24:36-39 3부: Hebrews 11:24-26	집례자 Scripture Presider
설 교 -----	1부: 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2부: 그날과 그때 3부: Faith Works: It Shows	안지웅 목사 (1부) 안인권 목사 (2부) Rev. Joe Ahn (3부)
광 고 -----		집례자 Announcement Presider
* 찬 송 -----	어둔 밤 쉬 되리니 (370장)	다같이 Hymn Congregation
* 축 도 -----		안지웅 목사 (1부) 안인권 목사 (2부) Rev. Joe Ahn (3부)

\*헌금순서는 개별적으로 좌석 통로 입구의 헌금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예배성공 · 기도승리 · 말씀순종 · 복음증거

목표 : ① 천배 부흥과 복의 통로가 되자      4대 명령 : 예배성공, 기도승리, 말씀순종, 복음증거  
② 기도자 7000명                                    3대 사랑 : 하나님사랑, 영혼사랑, 교회사랑  
③ 전도자 2000명                                    3대 기준 : 하나님영광, 교회유익, 성도축복

실천사항 :

- ① 용답(기독)의 통로
- ② 기쁨(성령)의 통로
- ③ 영광(감사)의 통로
- ④ 축복(순종)의 통로
- ⑤ 생명(의생)의 통로

새소망 성도의 확신 : 구원의 확신, 죄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새소망 성도의 자세 : 긍정적, 적극적, 도전적  
새소망 성도의 정신 : 포용력, 결단력, 인내력

# 지난주 설교 요약

## 가루 한 움큼의 가능성(왕상17:8-16)

존재적 한계에 대한 착각 – 가루 한 움큼은 두 가지를 증명해준다. 인간의 한계성과 하나님의 무한성을 증명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한줌의 가루만 남아있는 가루 통에 형편이 좋은 시절에는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계속 가루를 채울 수 있는 풍요로운 상황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게 한다. 왕조 시대의 왕들이 자신을 신격화 했던 이유가 무소불위의 권력에 도취된 결과였다. 그런 상황이 존재적 한계를 착각하게 만든다.

수단의 한계에 대한 착각 –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슥4:6-7)는 말씀은 인간의 수단적 능력적 한계를 지적한 말씀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물질적 수단과 물리적 힘이다. 그 힘의 배경이 되는 물질(가루)이 한 움큼 남은 상황이 되어서야 사람은 그 수단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 무궁무진 할 것 같았던 가루도 계속 되는 기근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마는 것이다.

계획의 한계에 대한 착각 – (눅12:16-21) 어리석은 부자는 예상 못한 대풍작으로 곡식 창고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풍요함을 누리는 미래의 꿈에 부푼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부르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 인간의 계획이 일장춘몽에 지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을 계획을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의 차이에 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점 – 일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이며 기독교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찾아오신 종교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기회의 공통점이 있다. 배부른 상황이 아닌 배고픈 상황, 희망이 넘치는 상황이 아닌 절망적인 상황에 찾아오신다. 고난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가장 희망적인 순간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엘리야)이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요구하신 것은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였다. 가혹한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천 명의 식사를 해결할 때도 하나 뿐인 오병이어 도시락을 요구하셨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하여 기근이 끝날 때까지 양식을 예비하셨다고 하신 사람이 가루 한 움큼 뿐인 가난한 과부 가정이었다.

하나님의 요구의 의미 – <누가 주인인가> 소유의 주인이 인생인가 하나님인가. 인생이 스스로의 양식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증거가 마지막 양식으로 생애를 마감해야 하는 처지가 그것이다. 인생이 주인이면 양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생존의 필수인 양식을 인생이 아닌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다. 소유 전부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양식을 책임지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요구의 의미 – <나의 일부가 아닌 전부> 생명과 같은 마지막 남은 가루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은 나 자신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나의 물질을 아닌 나라는 존재를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생이 소유한 물질이 필요하거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물질은 나의 소유의 전부요 바로 나 자신이다. 마지막 남은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삭을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요구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요구의 의미 – <물질이 아닌 순종과 믿음>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다. 육신의 목숨과 같은 물질을 요구 하심은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순종과 믿음은 실질적으로 물질과 육신과 시간을 통하여 확인되고 증명된다. 물질도 없어서는 안될 수준의 것, 시간도 없어서는 안될 수준의 것을 요구하신다. 부자 청년에게 재산 전부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예수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 되돌아갔다.

하나님의 요구의 의미 – <물질 수단, 말씀 수단> 생존의 수단이 두 가지가 있다. 물질 수단이 있고 말씀 수단이 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생존 수단에서도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 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다. 믿는 사람은 말씀이 생존 수단이며 세상 사람은 물질이 생존 수단이다. 물질 수단은 결국 죽는 수단이 되고 말씀 수단은 사는 수단이 된다.

한 움큼의 가루가 증명하는 것 – 한 움큼의 가루는 두 가지를 증명한다. 인간의 한계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무한 능력을 증명한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바알 신이 지배하는 시대에 참 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하고 그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증명하셨다. 한 줌의 가루에 지나지 않은 보잘 것 없는 존재라 해도 말씀을 순종하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 교회 소식

- ◎ 8월 첫열매새벽예배가 8월 1일(월)부터 8월 3일(수)까지 있습니다.
- ◎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VBS가 8월 1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있습니다.  
(문의: 우문주전도사 / 월-금, 오전 10시-오후 1시 30분)
- ◎ 학생부 여름 수련회 등록을 받습니다. (문의: 송진영목사)  
(8월 15일(월)-8월 17일(수) 장소: Camp Hebron, PA)
- ◎ 새벽예배 중보기도팀:  
(월)남여선교회 (화)예배팀과 찬양대 (수)금요찬양팀, 영어권찬양팀, 학생부찬양팀  
(목)교육부서 (금)청년부
- ◎ 국가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토요(이번주) 중보기도 담당: 충성②구역

## <8월 행사>

1. 첫열매새벽예배: 8월 1일(월)-8월 3일(수)
2.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VBS: 8월 1일(월)-8월 5일(금) 오전 10시-오후 1시 30분
3. 학생부 여름 수련회: 8월 15일(월)-8월 17일(수) 장소: Camp Hebron, PA

## <새소망교회 Youtube Channel>

- ◎ YouTube에서 "New Hope Church TV" 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 온라인 예배: [www.newhope.us/online](http://www.newhope.us/online) 에서 예배가 실시간 방송됩니다.  
매일 새벽예배(5:30AM), 금요예배(8:00PM), 주일예배(10:30AM, 1:30PM)

## <담임목사님 소개영상>

- ◎ YouTube에서 "C채널 방송 안인권목사" 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노방전도 일정표

<input type="checkbox"/> 일리콧시티 롯데	<input type="checkbox"/> 일리콧시티 한아름	<input type="checkbox"/> 일리콧시티 뚜레쥬르	<input type="checkbox"/> 케이튼스빌 한아름
첫째주 : 믿음 ① 구역 믿음 ② 구역	첫째주 : 충성 ① 구역 충성 ② 구역	첫째주 : 사랑 ① 구역 사랑 ② 구역	첫째주 : 은혜 ① 구역 은혜 ② 구역
셋째주 : 감사 ① 구역 기쁨구역	셋째주 : 능력 ① 구역 능력 ② 구역	셋째주 : 승리 ① 구역 승리 ② 구역	셋째주 : 화평 ① 구역 화평 ② 구역

## 이번주 구역 예배 장소

기쁨 구역 : 가정예배	믿음 ① 구역 : 가정예배 믿음 ② 구역 : 가정예배	감사 ① 구역 : 가정예배 감사 ② 구역 : 가정예배
은혜 ① 구역 : 가정예배 은혜 ② 구역 : 가정예배	화평 ① 구역 : 가정예배 화평 ② 구역 : 가정예배	사랑 ① 구역 : 가정예배 사랑 ② 구역 : 가정예배
충성 ① 구역 : 가정예배 충성 ② 구역 : 가정예배	능력 ① 구역 : 가정예배 능력 ② 구역 : 가정예배	승리 ① 구역 : 가정예배 승리 ② 구역 : 가정예배

## 예배와 모임 시간

### 주일 예배

- |                 |  |   |
|-----------------|--|---|
| 1부: 오전 8:00     | <input type="checkbox"/> 새벽예배: 오전 5:30 | <input type="checkbox"/> 청년부 제자훈련: TBA        |
| 2부: 오전 10:30    | <input type="checkbox"/> 금요찬양: 오후 8:00 | <input type="checkbox"/> 학생부예배: 오후 1:30 (토)   |
| 3부: 오후 1:30(영어) | <input type="checkbox"/> 구역예배: 오후 7:30 | <input type="checkbox"/> 주일 학교: 오전 10:30 (주일) |

# 복회칼럼

## 때를 아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는 열심히 주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시대를 분별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살기 바빠서 미처 시대를 분별할 여유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함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마16: 2-4). 이 말씀은 이 시대를 경고하며 무뎌진 시대감각을 깨워주는 말씀이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기에 관해 “자다가 깰 때”라 규정한다(행1: 11).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다가 깰 때”란 어떤 때인가?

새 시대가 둉터 오는 때이다. “자다가 깰 때”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뜻한다. 성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한다(롬13:11). 죽음 이후의 영생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의 종말이든 깨어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종말에 대한 예조들로는 이단의 창궐, 전쟁의 발발, 재난의 발생, 교통의 발달, 도덕적 타락, 서로 간의 배신, 사랑이 식어짐 등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예조들을 비추어 영적으로 매순간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새 시대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롬13: 11). 시대의 종말도 가까워졌지만, 개인의 종말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찾아오기에 참으로 임박한 사실이다. 우리는 임박한 종말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한다. 성경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 말씀한다(눅18:8).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매순간 말씀 앞에 깨어있어야 한다.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막4: 40), 믿음이 부족함(마6: 30)을 염히 책망하실 것이다. 반대로 믿음 안에 거하면 “믿음이 큰 자(마15: 28)”로 칭찬하실 것이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이 겨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고전3: 15)이 아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주님의 은혜를 흡족히 받아 풍족한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후6:2).

동시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때이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때이다(롬13:12). 구체적으로 어둠의 일이란 무엇인가? 어둠의 일에 대해 봄13:13은 상세히 기록한다. 방탕, 술취함 등으로 쾌락의 자리에 거하는 일, 음란, 호색 등으로 음행의 자리에 거하는 일, 다툼, 시기 등으로 분쟁의 자리에 거하는 일이 바로 어둠의 일이다(롬13:13).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때이며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을 때다(롬13:12). 빛의 갑옷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그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은 어둠의 일을 청산하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녀들이 바로 빛의 아들이다(살전5:5). 빛된 자녀들이 되려면 우리는 깨어나야 하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 또한, 깨어 의를 행하여야 한다(고전15:34).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새사람을 덧입는 것만이 인생의 참 소망이 된다. (엡4:22).

또한,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는 때다. 종말의 때에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마24:1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생 다 갚아도 갚지 못할 사랑을 주님께 빚졌다. 우리는 이를 잊지 말고, 날마다 그 사랑을 더욱 경험하며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 사랑을 전해주는 핵심적인 일은 바로 전도함으로 복음의 빛을 전달해주는 것이다. 오늘이라는 때는 바로 사랑해야 할 때요, 전도해야 할 때다. 우리의 구원은 점점 더 가까워 온다.

칠흑 같은 밤이 점점 깊어질수록 태양을 잉태한 새 아침은 등을 튕운다. 이를 기억함으로 매순간 영적으로 자다가 깰 때임을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가장 어두운 순간은 빛나는 아침을 잉태하는 순간이다. 절망이 완전할 수록 희망은 확실히 현실이 된다. 어두움에 희망과 꿈이 힘을 되어서는 안 된다. 어두울수록 깨어야 할 시간이 촉박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